

126. 문을 여는 사건... 예루살렘에 있는 바위의 사원의 파괴.

2015.09.07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저는 깨어나기 직전에 성령님께서 확인해주신 꿈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공유할 것이에요.

저는 바다로 나간 배 위에 있었어요. 저희와 멀지 않은 곳에 적의 배가 있었어요. 이 배의 고위 사령관은 그의 어린 소년과 그곳에 함께 있었어요. 눈 앞에서 저는 적의 배와 적의 배의 사령관이 저희를 방문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남자에게 어린 소년이 가진 매우 강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그 어린 소년이 무슬림인 적군 사령관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적군 사령관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의미를 알아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소년은 공식적으로는 미국 사령관의 아들이어야 했어요. 어쨌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즉, 이 아이가 미군 사령관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적군 함장 무슬림 사령관의 아들이었어요.

그들은 서로 적이었지만 친구같이 보였고, 뒤에서 그들은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곧 어떤 사건이 일어날 예정이었고 무슬림 사령관이 미국 사령관에게 그것을 와서 보라고 초대했어요. 저희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었고 무슬림 사령관이 긴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그는 미국 사령관에게 말했어요. “와서 보세요. 저기 보세요. 여기는 정말 전망이 좋아요. 여기는 정말 완벽한 전망이에요. 그는 미국 사령관에게 가까이 다가오라고 손짓하였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제 마음 속에서 그 생각을 하자마자 저는 바위사원의 꼭대기를 보았어요.

그동안 그 배는 여전히 바다에 있었어요. 무슬림 함선은 공격무기인 플라즈마 불을 발사하려 하였지만 장비가 세번 멈췄고 매우 큰 플라즈마 불이 마침내 발사되었을 때 원래 크기의 3분의1로 떨어져졌어요.

두 사람이 바위의 사원을 보고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들은 바위의 사원이 폭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무슬림 사령관이 말했어요. “무엇인가 잘못되었어요. 잘못 발사되었거나 무엇인가 잘못되었어요.” 저는 제 마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겠지. 그것은 절대로 다시 보여 지지 않을 거야.’ 그런 후에 저는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저희의 집의 문을 두드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깨어나 이 꿈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꿈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주님을 찾았고 주님이 '요엘서2장' 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성경책을 펴고 읽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하였어요. 왜냐하면 요엘서의 두 번째 장의 전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게 하는 사람들의 회개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요엘서 2장에 대해 말하자면 말그대로 이 꿈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유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님께서 플라즈마 볼이 차단된 이유의 역동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꿈의 의미를 찾기 위해 주님을 찾고 요엘서 2장을 읽은 후 제가 역동이 나타난다고 느끼는 2가지를 거기에서 찾아내었고 그것은..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종을 울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떨게하라. 여호와와 심판 날이 다가오고 있다.

2절: 그 날은 어둡고 칙칙한 날이며 캄캄하고 구름 낀 날이다. 새벽의 여명이 온 산을 뒤덮듯이 크고 강한 군대가 이르렀으니 이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12절: 여호와께서 “너희는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나에게 돌아오라” 고 말씀하신다.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 돌아오라. 그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벌하는 것을 마음아프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14절: 혹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너희를 축복하셔서 너희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곡식과 전제를 드릴 포도주를 주실는지 누가 알겠는가?

(예수님) 내 사랑아, 그 의미는 너에게 분명해야 해. 나는 사건들을 시작하게 만들었을 그 특정 사건을 지연시켰어.

(클레어) 기억하세요, 주님은 모든 것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여쭙보았어요.. “바위의 사원의 파괴요?”

(예수님) 그거야.

(클레어) 이 사건이 저번 봄(2015년)에 주님께서 기다리시던 사건이예요?

(예수님) 모든 것이 시계처럼 작동하도록 설정되었어. 하지만 우리는 전 세계, 특히 호주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금식으로 인해 다시한번 누그러들었어. 그것은 미국 사람들의 회개와 많은 기여를 한 대단한 기도였어. 너가 보다시피 나는 나의 영광의 그릇들을 일으켜 그 사이에 세웠고 호주는 심판의 지연에 많이 기여하였어. 이것에 대해 모든 미국인들은 매우 감사해야 해.

이제 2015년 6월에 계획하였던 사형 집행이 누그러져 상황이 달라졌어.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나는 세계인구의 3분의 2를 몰살시키려는 국가들의 잘 짜여진 계획을 다시한번 지연시켰어.

이것은 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문제들과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해. 그리고 나는 전진하는 어둠과 싸우기 위해 나의 성스러운 영혼들의 군대와 함께 전진할 거야. 이것은 내 영광을 되찾을 것이고 큰 승리가 될 거야. 이것을 확실히 해둬. 휴거는 2015년 6월에 일어나려고 했어.

이것이 내가 너희들 모두가 일어서서 각자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준비한 이유야. 지금은 앉아서 기다릴 시간이 아니야. 지금은 행동을 취해야 할 때야. 이것이 내가 너희들의 위치를 맡긴 이유야. 이 연장된 시간동안 나를 섬기는 너희들의 영향력은 내가 휴거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을 얼마나 오랫동안 막을 수 있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그래, 나도 알아. 이미 듣고 있어. 너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울면서 나를 위해 수고하는 것에 대한 포기를 원하는 것을.

(클레어) 주님, 저는 몇 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대요.. 주님은 휴거를 몇 년 늦추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아니, 나는 몇 달을 생각 중이야. 그동안에 나는 나의 신부들이 될 수 있는 또다른 기회를 줄 거야. 2015년 6월에 휴거 되지 않았을 신부들에게 나를 위해 새로운 영토를 차지할 또다른 기회를 다시 주고 있어. 나는 그들에게 단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나서서 왕국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들 자신을 헌신하도록 요청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망쳤어. 그들에게도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거야. 오 클레어, 이걸 너무 중요해. 6월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신부들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내가 그들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부족하였어. 그들 자신에 대한 집착은 그들을 실격시켰어.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고 섬기려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 시간을 활용하는데 훨씬 더 진지해졌어. 나는 많은 개선을 보았고 많은 자비를 가질 거야. 하지만 아직도 그들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뒤쳐진 사람들에게 말해. 깨어나라!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너희들의 삶의 또 다른 날들을 낭비하지 말아라. 나의 신부들은 그들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일을 해야 해.

(클레어) 주님, 정말로 운석이 다가오고 있나요? 아니면 과장된 것인가요?

(예수님)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것에 만족하고 세상은 그 선지자를 따르게 해. 그것에 대해 너가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였다면 내가 너에게 말했을 거야. 내사랑아, 이제 충분히 이해했어?

(클레어) 네 주님.

(예수님) 나는 너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들만 너에게 말해줘.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을 가져오고 나머지는 남겨둬.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매우 동요하고 있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들은 매듭으로 묶여 있어. 그들은 이 모든 예언들의 매듭으로 묶여 있어: 이 예언, 저 예언. 그들이 어떤것을 들으면 다른 모든 이야기들과 함께 섞어. 그들이 또 다른 예언을 들으면 그들은 그들이 들은 모든 것들을 함께 섞어서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 지점까지 깊이 혼란스러워지게 되어져.

그래서 내가 이 유튜브 채널에서 내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영혼들에게 미디어의 모든 추측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친 이유야. 이것은 교화하고 발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하게하고자 하는 것들을 훼손하고 방해하기만해. 이것은 그들의 집중을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들 자신의 생존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사탄의 의도적인 계획이야.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걱정으로 몸을 아프게 만들기도 했어. 너희들이 유튜브 채널에서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른다면 그것은 좋은 열매가 아니야. 물론 그 유튜브 채널에서 말한 내용을 너희들이 잘못 해석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으며 내가 한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겁에 질려 안절부절 못하는 경향이 있어. 악마들은 또한 원래의 말과는 더 이상 똑같지 않는 지점에 올 때까지 그것을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을 매우 좋아해. 그러므로 나의 소중한 사람들아, 항상 매우 주의 깊게 듣고 겁에 질려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을 느끼면 다시 들어라.

음, 오늘밤 나의 전체적인 메시지의 내용은 지구에서의 시간을 소중하게 만드는 거야.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지 말고 일어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거나 잘하고 있는 중에 지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치기 시작하면 기도와 일의 균형을 바꾸어라.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더 적은 일을 해라. 이런 방법으로 너희들은 다음 라운드를 위해 끊임없이 활력을 되찾을 거야.

나는 너희들 모두와 함께 있어. 너희들의 오른쪽에 있고, 성찬식에서 너희들을 강화시키고, 찬양에서 원기를 북돋아주고, 너희들을 하루 종일 보호하고 너희들에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고 있어. 나의 달콤한 목소리를 들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모든 것을 죄책감이나 자책없이 받아라. 우리는 이것을 함께 하고 있고 너희들은 진정한 나의 배우자들 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쇠약해지게 내버려둘 수 있겠어? 아니 나는 바로 여기 너희들 곁에서 너희들과 함께 쟁기를 갈고 있어.

나의 희망의 축복이 너희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아멘.